

Ethylene, 호남 8000톤 남아 급락!

FOB Korea 380-400달러로 25달러 하락 ... SE Asia는 480-500달러

Ethylene 가격은 10월17일 FOB Korea 톤당 380-400달러로 25달러 하락했다.

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호남석유화학의 HDPE 플랜트 폭발사고의 영향으로 PE용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한국가격만 급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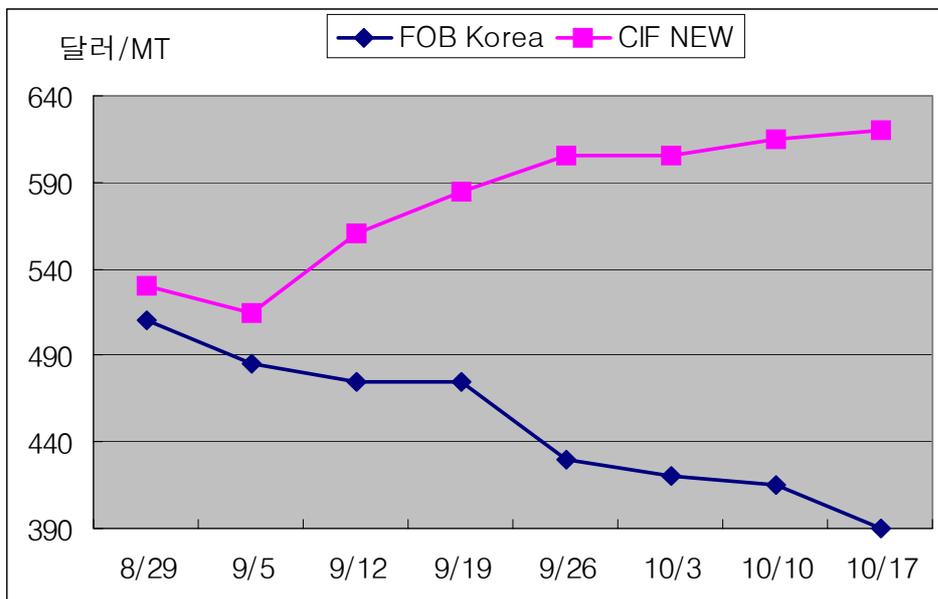
호남석유화학은 11월 에틸렌 8000톤이 남아돌아 2000톤 Cargo 4개를 FOB Yeochon 톤당 400-405달러에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, 무역상들은 380달러를 제시하며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.

반면, 동남아시아에서는 PE 가격이 오르면서 수급불균형이 발생해 CFR SE Asia 가격은 톤당 480-500달러로 20달러 상승했다.

이에 따라 타이완의 Formosa를 비롯해 USI, OUCG 등은 11월 초순 또는 하순 거래물량을 CFR Kaohsiung 또는 Mailiao 톤당 450-46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인도네시아에서도 11월 초순 에틸렌 3000-3500톤을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아시아에서는 한국 및 일본에서 에틸렌 공급과잉이 발생한 반면, 동남아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전환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

Ethylene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10월17일 CIF NWE 톤당 610-630달러로 5달러 상승했으며, 3/4분기 계약가격은 톤당 445유로를 형성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20>